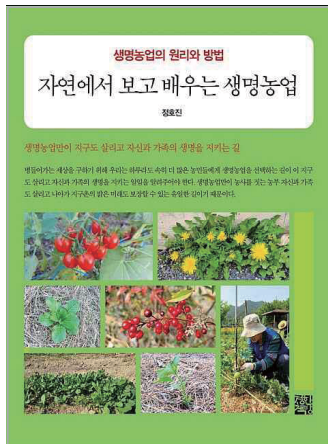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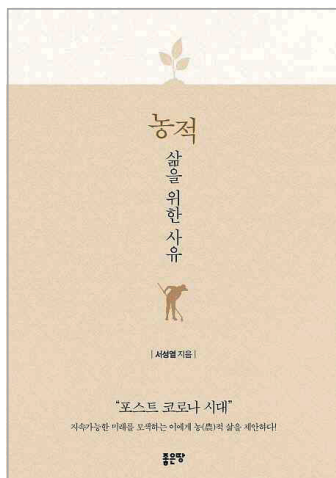


● 자연에서 보고 배우는 생명농업



저자인 정호진 목사는 생명농부로 살아왔고 인도, 네팔, 아프리카 말라위 등에서 생명농업에 기초한 행복한 마을만들기 운동을 선교적으로 전개해 오면서 어렸동안 생명농업에 대한 이론과 실천의 경험을 쌓았다. 이 책은 그 경험을 책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생명농업만이 농사를 짓는 농부 자신과 가족을 살리고 나아가 지구촌의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말하고 있다.
정호진/ 정한책방/ 17,000원

● 농적 삶을 위한 사유



오늘날 생태계 파괴와 그로 인해 땅이 받는 고통은 기후위기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으로 우리에게 엄습해 오고 있다. 저자는 이런 비상 상황 속에서 산업적 삶의 양식으로부터 탈피하여 농적인 삶을 살 것을 제안하고 있다. 그리고 생명농업에 토대를 둔 소농 중심의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면서 이를 지지하는 삶을 살자고 말하고 있으며, 그런 농적인 삶을 사는 사유(思惟)를 '농사상'이라고 부르고 있다.
서성열/ 좋은땅/ 15,000원

계간
농촌과
목회

2021
여름호

기획특집 / 한국 교회의 문제와 해결의 모색

통권 90호

· 2021 년 여름호

농촌과 목회

농촌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전문 계간지

기획특집 / 한국 교회의 문제와 해결의 모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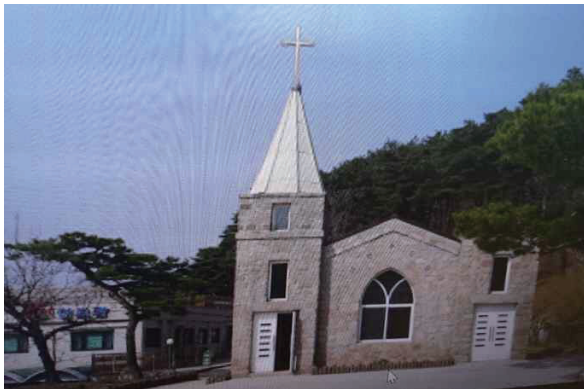


농촌과목회 편집위원회

통권 90



기독교 대한수도원
전진 원장
(1912~1996)



기독교 대한수도원 소성전(위)과 대성전(아래)

이제, 예배가 살아난다!

목회자, 교회음악가, 예배 인도자를 위한 필독서

21세기 예배학 개론

루스 덕 지음 | 김명실 옮김 | 신국판 504쪽

이 책이 회중 모두가 적극적인 예배 참여자가 될 수 있는 예배를 기획하는 이들에게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.

조기연 박사_서울신학대학교 부총장

이 책에는 목회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뿐 아니라 학문적이고 통합적이며 실천적이고 동시에 실행을 위한 사례와 훈련의 요소가 반영되어 있다.

김경진 박사_소망교회 담임목사

만일 예배에 관한 책을 딱 한 권만 가질 수 있다면, 그 한 권은 바로 루스 덕의 『21세기 예배학 개론』일 것이다. 일독을 권한다.

안선희 박사_이화여자대학교 예배학 교수

‘생동감 넘치는 예배’를 소망하는 예배 공동체들이 이 책을 통해 새로운 예배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.

박해정 박사_감리교신학대학교 예배학 교수

